PIGHEAD LAB

월간

# 피그헤드랩

47호 2026.11



ISSN 3059-0280

# 차례


| | | |
|---|---|---|
| **이채연** | 파와 칼 | 서른아홉번째 원고 |
| **이동민** | 드골과 다를랑 : 갈라진 프랑스 | 네번째 원고 |
| **X** | 그 곳에 가고싶다 : 유토피아(Youtopia-사막) | 스물한번째 원고 |
| **한량윤씨** | 여백의 바닥 | 열세번째 원고 |
| **김희진** | 불면 그 중 | 서른네번째 원고 |
| **오종원** | 단편소설 개 짖는 밤 (1) | 마흔두번째 원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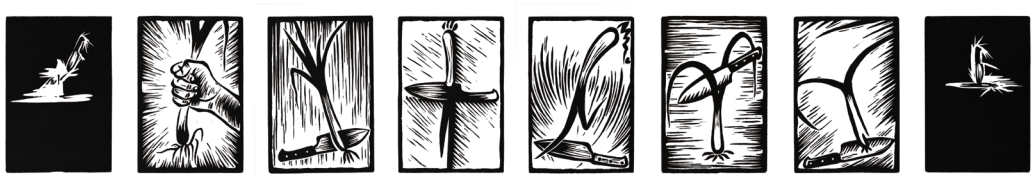
# 39

서른아홉번째 원고

# 파와 칼

**이채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판화 작업인 ‘파와 칼’(2025, 종이에 목판, 18×104cm)은 2023년 출간 한 본인의 책 <이것은 파가 아니다>의 후속 작업이다. 책이 살림하며 작업하는 다소 순응적 일상을 보여주었다면, 이 작업은 꽤 순한 주부로 작업과 살림을 병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억눌려 있었던 감정을 ‘파’와 ‘칼’로 이야기 한다.

‘파’는 주부로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며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흔한 식재료이지만, 긴 줄기가 쭉 뻗은 곳곳한 자태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서, 나 자신과 자존의 상징으로 간택된 지 오래 되었다. 나를 대신하여 작업에 등장한다. ‘칼’은 이번 <파와 칼>을 하면서 새롭게 선택되었다. 부엌칼이다. 집에서 식사를 담당하는 나에게는 파처럼 흔하고 익숙하다. 집안 살림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살림템(살림+아이템)이지만, 때론 흉기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양가적인 매력에 이끌려 살림의 상징으로 설정했다.

‘파’는 식재료로서 그 자체로 먹기 보다는 가공되어, 음식에 두루 넣어진다. 파는 칼로 썰려서 맛있는 음식의 일부가 된다. 맛난 음식이 된 파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칼’이 ‘파’를 사랑받게 만들어 주었다. ‘칼’은 ‘파’를 썰어 파괴하기도 하지만,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어 상생하기도 한다.

그처럼 살림은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나를 해하기도 한다.

목판화는 기본적으로 나무판을 칼로 파고, 문지르고, 썰고 등의 여러 행위를 하는 작업이다. 우연한 계기로 목판화 작업을 하기 전까지, 내가 칼을 들고 만들어 낸 결과는 요리 밖에 없었다. 어느 날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도마 위에 ‘파’를 놓고 ‘칼’로 썰려고 하는데, 칼로 뭘 하려던 것인지 잠시 헷갈렸다. 칼을 들고 ‘파’를 썰어 국에 넣으려 했던 것일까? 이제까지 ‘파’를 그려왔던 것처럼,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파와 칼’ 이 둘의 관계를 상상했고 칼로 새겼다.

칼을 손에 쥔다. 나무에 칼을 댄다. 칼이 여러 갈래로 후비고 파내며 지나간다. 그 자국이 개울이 된다. 개울이 흐르고 남은 땅은 그림이 된다. 상처를 줬는데 작업이 되었고, 마음이 되었다.

**그처럼 살림은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나를 해하기도 한다.**



전시 설치 모습



개인적으로는 '파와 칼' 작업이 좋은데 전시만으로 보여주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림에 담긴 이야기도 보여주고 싶었다. 정식으로 책으로 만들기에는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는 생각에서, 개인의 생각과 취향을 자유롭게 담아 직접 만들고 발행하는 소규모 독립 출판물인 zine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Zine – 파와 칼**
인쇄 방식 양면 컬러 인쇄
제본 방식 8단 병풍 접지
크기 12×72cm (펼친 크기)
종이 분펠 204g
가격 10,000원



6.
으아아아~~~악愕樂*
신이 나다

——

Aaaaaargh~~~!
Ecstasy

*악악: 놀랄 愕, 음악 樂

5.
내려온다. 들어온다.
분열

——

Descending
Entering
Division

4.
선 넘어 버리기.
탈주

——

Line of Flight
Escape

칼로 '파'를 파내다.

——

Carve Pa to Reveal Pa









**도마 위에 디스플레이 된 파와 칼**

나의 작업 살림하며 떠오른 생각을 옮긴 것들이 대부분 이다. '파와 칼' 역시 저녁 준비를 하며 대파를 썰다가 구상하였다.



**0 표지**
칼로 '파'를 파내다
Carve Pa to Reveal 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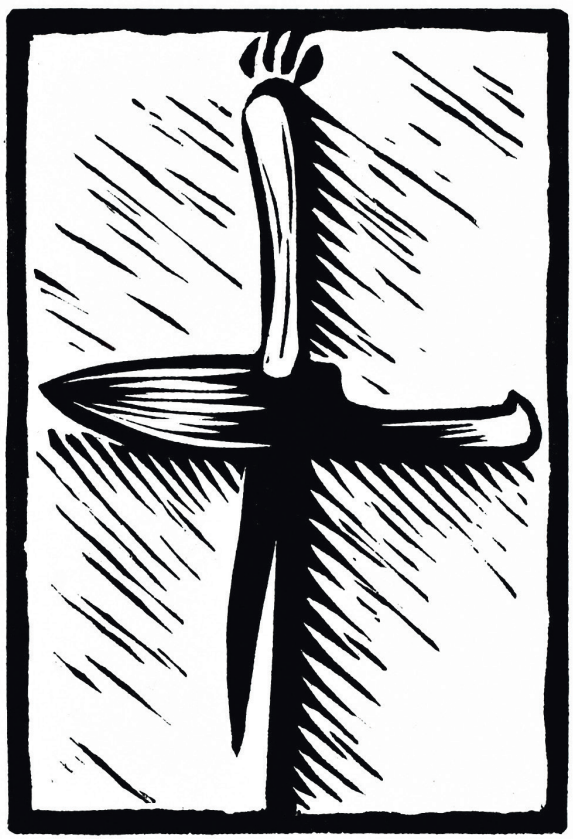


1
파를 꽉 쥔다
밥 할 결심
Clutching a Pa
The Resolve to Cook



2
칼이 파에 꽂혔다.
아니
파가 칼에 꽂혔다
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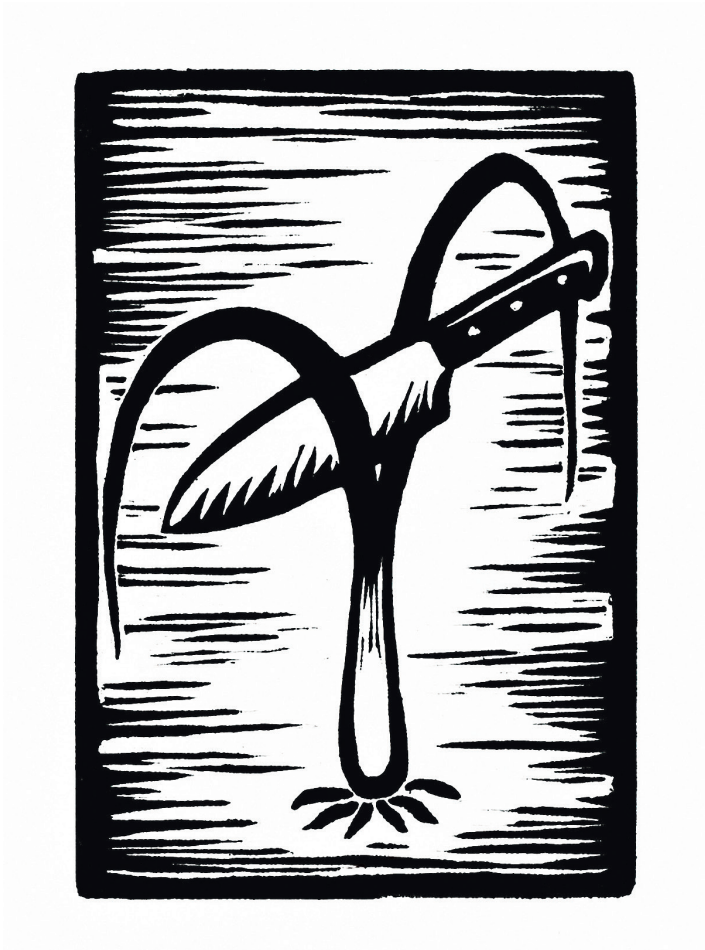
The knife entered the Pa
No
The pa entered the knife
Self-awareness



3
빛이 내려온다
부활
Light comes down
Rebi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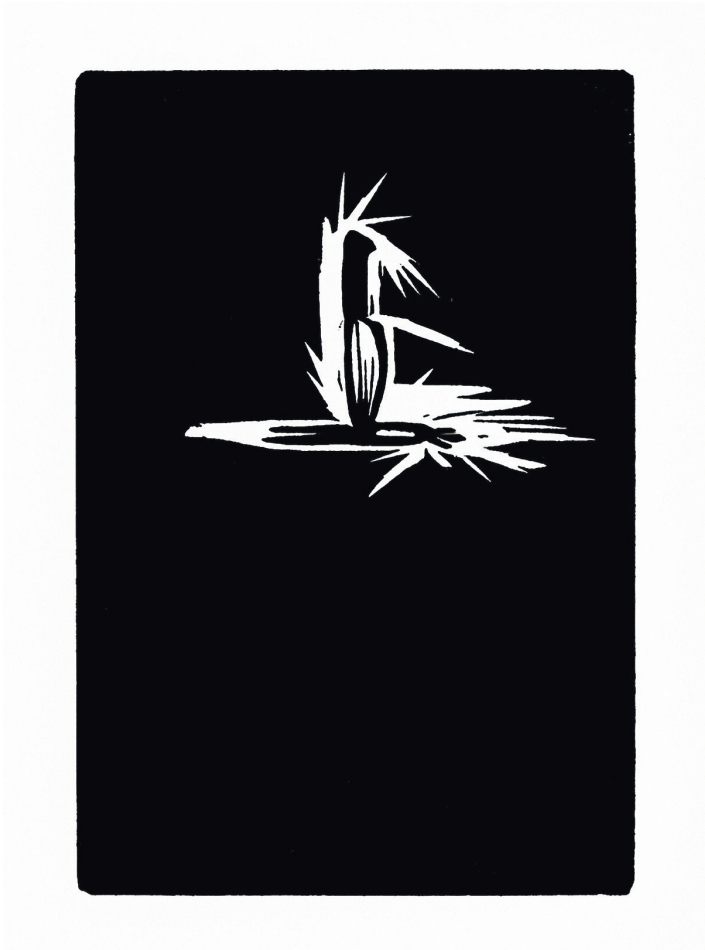
4
선 넘어 버리기
탈주
Line of Flight
Escape



5
내려온다
들어온다
분열
Descending
Entering
Division



6
으아아아~~~악愕樂
신이 나다
Aaaaaargh~~~!
Ecstasy



**0-1 뒷표지**
나를 살리는 살림
나를 누르는 살림
The life that saves me
The life that presses on me

본 글은 시방아트 2026년 <지금 이시각> 66호에 게재된 글을 수정·보완하여 재게재한 것입니다.

# 4

네번째 원고

# 드골과 다를랑 : 갈라진 프랑스

**이동민**
자전거와 투르드프랑스를 연구하는, 서양사학자




영화와 역사 | 특별기획 만화
드골과 다를랑
—갈라진 프랑스—
영화로 읽는 프랑스 해방의 정치사
드골
자유 프랑스
항전의 지도자
왕당파
왕정 복귀를 지향한
보수·민족 세력
(알제리의 왕당파와
항전 네트워크)
다를랑
프랑스 해군
휴전을 통한
체제 보존
르 파리시앙 로얄리스트
(왕당파 신문)
왕당파는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프랑스의 해방을
드골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곁에는
왕당파의 존재도
있었습니다.
마카롱
해방 이후의
프랑스, 그 방향은?
누가 프랑스를 대표할 것인가?
01 / 10

1940년 6월, 독일군의 파죽지세 앞에 프랑스는 불과 여섯 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파리가 함락되고 정부가 붕괴하자, 프랑스의 정치·군사 지도부는
전쟁을 계속할지, 아니면 독일과 휴전을 맺고 나라를 보존할지 두고 크게 갈라졌습니다.




## 그런데, 왕당파는?

프랑스에는 여전히 왕정 복원을 꿈꾸는 왕당파(왕당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페탱의 비시 정부를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이후 레지스탕스(저항운동)에 가담해 독일에 맞서 싸웠습니다.






**비시 정부를 지지한 왕당파**

- 페탱을 '질서와 보호'의 지도자로 지지
- 왕정 복원의 기회로 기대



**레지스탕스에 가담한 왕당파**

- 독일 점령과 비시 정부에 반대
- 자유 프랑스와 연계해 저항 활동 전개

02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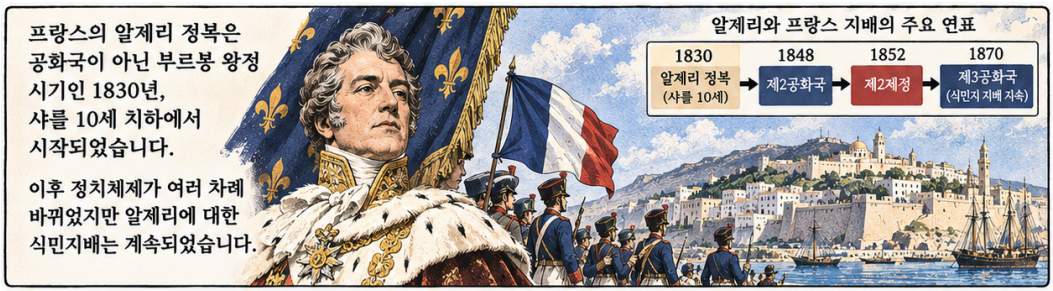






결국 영국 해군은 알제리의 메르스엘케비르에 정박한 프랑스 함대를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인들의 반영감정이 고조되었고, 드골의 자유 프랑스 운동 역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프랑스의 알제리 정복은
공화국이 아닌 부르봉 왕정
시기인 1830년,
샤를 10세 치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정치체제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알제리에 대한
식민지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알제리와 프랑스 지배의 주요 연표
1830
알제리 정복
(샤를 10세)
1848
제2공화국
1852
제2제정
1870
제3공화국
(식민지 지배 지속)


샤를 모라스
왕정복고
반의회주의
통합적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20세기 초 알제리의 유럽계 정착민 사회에도
샤를 모라스가 이끈 왕당파 운동, 『악시옹 프랑세즈』
(Action française)가 확산되었습니다.
1930년대 알제리에서는 왕당파를 비롯한
우익 민족주의 세력들이 활동했으며,
반유대주의 역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L'Action française
Organe du nationalisme intégral
ACTION FRANÇAISE


앙리 다스티에 드 라 비제리
Henri d'Astier de La Vigerie
(1897–1952)
『악시옹 프랑세즈』 활동 경력
1940년 저항운동에 참여,
이후 알제리에서 활동
그런데 이 왕당파 인물은
훗날 알제리의 유대계
저항운동가들과
협력하게 됩니다!
왕당파와 유대인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04 / 10

1870년 크레미외 법령에 따라 알제리의 토착 유대인들은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받아 프랑스의 '완전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0년 10월, 비시 정부는 이 법령을 폐지하고 이들의 프랑스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Décret Crémieux
(24 octobre 1870)
Décret portant naturalisation des Israélites indigènes de l'Algérie.

1870년
크레미외 법령
(알제리 유대인에게 프랑스 시민권 부여)

GOUVERNEMENT DE L'ÉTAT FRANÇAIS
Décret du 7 octobre 1940 relatif au retrait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aux Juifs d'Algérie

1940년 10월
비시 정부의 법령
(시민권 박탈)

앙리 다스티에 드 라 비제리
Henri d'Astier de La Vigerie
(1897–1952)

- 왕당파(악시옹 프랑세즈) 활동 경력
- 반독일 민족주의
- 미국 측과의 접촉·협상 (연합국과의 연계)

1942년 봄, 왕당파 출신의 다스티에와 유대계 공화주의자 아불케르가 이끄는 저항조직은 연합군의 북아프리카 상륙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제 아불케르
José Aboulker
(1920–2009)

- 알제리의 유대계 의대생
- 공화주의자
- 알제리 현지 저항조직의 결성 및 지휘

다스티에의 네트워크
- 왕당파 인맥과 정치적 영향력
- 미국 측 인사와의 교섭·연락

아불케르의 네트워크
- 유대계·공화주의자 인맥
- 알제리 현지 저항조직의 조직화

알제리 저항운동
연합군 북아프리카 상륙 지원

1942년 11월, 횃불 작전
(Opération Torch)

왕정복고를 지향하는 사람과 공화주의자가 같은 저항운동에 참여한 것이군요!

*그들은 같은 프랑스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당장의 공동 목표를 위해 연대했습니다.*

05 / 10

1942년 11월 8일,
미국과 영국은
'횃불 작전
(Opération Torch)'을
개시해 프랑스령
북아프리카에 상륙했습니다.

알제에서는 다스티에와
아불케르가 이끄는
저항운동가들이 연합군의
상륙을 지원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앙리 지로 장군을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의
프랑스군을 연합군에
합류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알제에 있던
다를랑이 프랑스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미국은 결국 다를랑과
타협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미군 사령관)
- 프랑스군과의 교전 중단
- 대독일 전쟁에 연력 집중
- 현실적 타협 선택

**다를랑**
(전 비시 정부 부총리)
- 비시 체제의 핵심 인물
- 북아프리카 프랑스군 지휘권
- 연합군과 협상, 권력 유지

**지로**
(프랑스군 장군)
- 미국이 당초 지지한 인물
- 연합군과의 협력 대상
- 알제도착이 지연되어 주도권 상실

그 결과, 1942년 11월 22일 체결된 클라크–다를랑 협정에 따라 다를랑은 프랑스령 아프리카의 고등판무관이 되었습니다.

▶ 같은 시기, 다스티에 역시 다를랑 정부의 정치담당 차관보로 임명되어 정부 내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1942년 말, 알제리의 왕당파 인사들은 다를랑을 대신할 정치적 지도자로 오를레앙 왕가의 계승자, 파리 백작을 주목했습니다.

파리 백작 역시 같은 해 12월 알제를 방문하여 정치적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파리 백작 앙리**
Henri, comte de Paris
(1908–1999)

- 오를레앙 왕가의 계승자
- 프랑스 왕위 요구자
- 왕당파가 구상한 새로운 저치적 지도자

왕당파의 주요 인사였던 앙리 다스티에와 알프레드 포즈는 파리 백작을 중심으로 드골과 지로를 결집시켜 프랑스의 정치적 통합을 이뤄내려 했었습니다.

이들에게 프랑스의 해방은 반드시 공화국의 복원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왕당파의 정치적 구상**

**파리 백작**
(정치적 통합의 중심)

**드골**
(자유 프랑스)

**지로**
(프랑스군)

실현되지 않은 정치적 구상

**페르낭 보니에 드 라 샤펠**
Fernand Bonnier de La Chapelle
(1922–1942)

- 왕당파 인맥과 연결된 젊은 저항운동가

1942년 12월 24일, 보니에 드 라 샤펠은 알제에서 다를랑을 암살했습니다.
그러나 다를랑의 사망 이후 권력을 계승한 인물은 파리 백작이 아니라 지로였습니다.

Le Figaro
L'amiral Darlan assassiné à Alger

다를랑
(피살, 1942.12.24)

지로
(권한 승계)

프랑스의 해방 과정에서 왕정복고도 정치적 선택지로 거론되었던 것이군요!

**공화국의 복원은 처음부터 정해진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07 / 10

다를랑의 사망 이후, 알제리의 프랑스군과 행정조직을 이끈 인물은 앙리 지로였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드골보다 지로를 더 신회하며, 그를 프랑스의 주요 협력자로 여겼습니다.

**앙리 지로**
Henri Giraud
(1879–1949)

- 프랑스 육군 장군
- 복아프리카 프랑스군 지휘권 확보
- 미국의 군사적 지원
- 정치적 통합보다 군사적 항전 우선

**루스벨트**
미국은 지로를 통해 프랑스군의 협력을 확보하고, 대독일 전쟁에 집중하려 했다.

1943년 1월, 루스벨트와 치칠은 카사블랑카 회담에서 드골과 지로의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드골과 지로는 프랑스의 해방 이후 정치적 권위와 군사적 지휘권을 두고 끝내 타협하지 못했습니다.

카사블랑카 회담 (1943. 1. 14 – 24)
원쪽부터 드골, 지로, 루스벨트, 치칠

**프랑스 대표권을 둘러싼 세력 관계**

**루스벨트**
(미국)
연합군의 군사적 이익 우선

**드골**
(자유 프랑스)
정치적 대표권 확보
독자적 권위 추구

경쟁

**지로**
(복아프리카 프랑스군)
연합군의 군사 협력
프랑스군의 실절 지원

**파리 백작**
(오를레앙 왕가)
정치적 구상 좍질

지로는 1943년 3월, 비시 정부의 여러 법령을 폐지하며 반(反)비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알제리 유대인들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했던 크래미의 법령의 폐지는 골바로 되돌리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완젼한 권리 회복은 더 늦제 이루졌습니다.







*프랑스의 **군사적 해방**과 **정치적 재건**은 서로 다른 문제였습니다.*

08 / 10

드골은 프랑스 국내의 저항운동을 통합하기 위해 장 물랭을 파견했습니다.

장 물랭은 각기 흩어져 있던 저항조직과 정당,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기구의 구성을 추진했고, 1943년 5월 27일 파리에서 전국저항평의회(CNR)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 물랭**
Jean Moulin
(1899–1943)

- 프랑스 국내 저항운동의 통합
- 드골의 국내 대표
- 전국저항평의회(CNR) 초대 의장

**전국저항평의회(CNR)의 구성**
(1943. 5. 27)

| 8개 | 6개 | 2개 |
|---|---|---|
| 저항운동 조직 | 정당 (공산당·사회당·급진당 등) | 노동조합 (CGT·CFTC) |

→ 전국저항평의회(CNR)

→ 드골의 정치적 정통성 강화

이러한 국내 저항의 지지를 바탕으로, 1943년 6월 3일 드골과 지로의 세력이 통합되어 프랑스 민족해방위원회(CFLN)가 출범했습니다.

처음에는 드골과 지로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이끌었으나, 이후 점차 드골이 정치적 주도권적 장악해 갔니다.



드골 (자유 프랑스) / 지로 (북아프리카 프랑스군)

**드골의 대표권 확립 과정**

| | |
|---|---|
| 1943년 5월 | CNR 결성: 드골 지지 결의 |
| 1943년 6월 | CFLN 출범(드골·지로 공동 의장) |
| 1943년 8월 | 군사권과 정치권의 분리 추진 |
| 1943년 11월 | 지로의 이탈, 드골의 단독 지도체제 |
| 1944년 6월 |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 출범 (GPRF) |

드골은 저항운동 조직뿐 아니라 공산당·사회당·급진당 등 다양한 정당과 노동조합의 지지를 결집시켜, 연합국과의 협상에서도 프랑스의 정치적 대표자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드골의 권위는 군사적 지위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의 결집을 통해 형성된 것이군요!

*드골의 프랑스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통합의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09 / 10

2026년 칸 영화제에서
상영된 앙토냉 보드리 감독의
영화 《*La Bataille de Gaulle : L'Âge de fer*》.

드골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항전과 해방을 그린 작품으로,
오늘날의 프랑스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해방을 위해
움직였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정치체제를
꿈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화국의 복원, 왕정복고,
저항운동의 통합 등
서로 다른 구상을 가진 이들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프랑스의 해방을
이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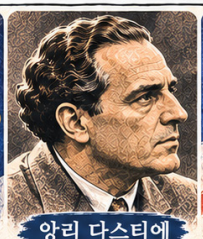
**드골**

프랑스의 정치적 독립과
공화국의 정통성



**파리 백작**

왕정복고라는
정치적 가능성



**앙리 다스티에**

왕당파 출신의
저항운동가



**조제 아불케르**

유대계 공화주의자이자
저항운동가



# 21

스물한번째 원고

## 그 곳에 가고싶다 : 유토피아(Youtopia-사막)

**X**

작가 & 전시기획자



……수년 전 쉐리프 엘사페이가 나에게 사막에 간다고 했었다. 당시 그가 한국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 이집트의 사막에서 며칠 지낸 것으로 나는 기억한다. 그와 몇십 년이 지난 후 캐나다 몬트리올의 추운 날 재회하게 되었다. 일본인 아내와 두 딸을 둔 그를 다시 봤을 때, 나의 열아홉 살 풋사랑의 감정보다는 세월이 그의 얼굴을 이렇게 변하게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와의 만남은 고등학교 때 읽었던 버지니아 울프의 『세월』을 다시 생각하게 했고, 그가 나에게 헤어지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을 나는 오늘도 여전히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오늘까지도 내가 당시 그토록 가고 싶었던 사막에 가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 때 사막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주 어렸을 때 소설 『어린 왕자』를 읽고 나서도 궁금했지만, 종종 영화에 나오는 사막 장면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배낭여행으로 중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후허하오터의 사막에 가는 코스를 선택하려 했지만, 누군가 그곳에 가는 데만 3~4일이 걸린다고 해서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포기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쉐리프가 짧은 메일에 사막에서 별을 보았다는 비슷한 내용으로 썼던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오랜 시간 사막을 기억에서 지웠다. 20대에서 30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일을 겪으며 현실 지향형으로 성격이 바뀌었고, 사막의 오아시스나 전갈과 여우, 그리고 낙타는 나에게 낭만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생존의 문제로 느껴졌다. 20대에 프랑스 유학 시절 프랑스 친구 로진이 남자친구와 세네갈의 사막 여행을 낭만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나는 친구의 이야기에서 생존의 위기의식을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누군가 자는 동안 지갑을 훔쳐 가고 뒤에서 칼로 찌르면, 사막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최근 몇 번 방문한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막 체험 홍보 광고를 보면서 엄청 마케팅에 쩐다고 느꼈다. 사막에 가서 오토바이도 신나게 타고, 칼로리를 엄청나게 올리는 고기도 구워 먹고..... 낙타 등에 한 번 엎히고..... 음.....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았다. 낙타는 도시에도 데려올 수 있다. 엄청 민감한 동물이라 낙타가 도시를 싫어하겠지만..... 고기도 도시에서 먹을 수 있다..... 오토바이는 도시에서 타면 더 잘 굴러간다.....

굳이..... 이런 것을 돈 주고 해야 하나?

어느 날 한국 작가가 테크노 음악을 좋아하면 영화 <시라트>(SIRAT, 2025)를 보라고 해서 여행 중 비행기 안에서 보게 되었다. 나는 속으로 '그래, 역시 사막이야..... 생존의 어려움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 역시 페드로 알모도바르가 프로덕션을 해주고 싶은 영화지.....'라는 평을 했다.

예전 발 킬머가 주연한 영화 <도어즈>나 알레한드로 호도로프스키 감독의 <신성한 산>에서 사막 장면을 보면서도 감동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와우, 어떻게 찍었을까? 덥겠다. 하필 왜 저기서 춤을 출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 알레한드로는 남미 출신이고 더운 나라에서 왔으며 워낙 천재적이니 저렇다고 치자..... 그런데 <도어즈>가 진짜 저랬나? 굳이 영감을 얻기 위해 사막까지 가서 옷을 벗고 저래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나의 감성에는 영화 <듄>이나 <매드 맥스>가 더 현실성 있는 영화로 다가왔다. 비록 네 영화 모두 뛰어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래서 종종 데이트하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나에게 로맨스가 부족한 여성이라고 하는데, 나는 참..... 현실적이다. 그래서 사막처럼 드라이한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오늘날 나에게 이상하게도..... 다시 사막에 대한 이상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몇 년 전부터 관심 있게 본 모하마드 알파라지 작가의 작품이 그 시작이었다. 그의 작품을 잠깐 들여다보며 나의 현실 지향형 성격과 사막의 현실적인 삶이 맞닿는 부분을 발견했다. 알파라지의 작업은 낭만을 떠나 사막을 좀 더 현실적으로 재현한 공간이었다. 아라비아 유목민의 삶은 사막과 뗄레야 뗄 수 없고, 그의 작품 속에서 대추야자수는 아라비아 유목민의 삶에 물과 음식, 삶의 터전을 공급해 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거기에 새가 매개체로서 사막에 씨앗을 나르고 뿌렸다는 사실은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나는 2023년부터 그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조금씩 사막이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각도를 달리했다. 또한 물을 찾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이동하는 베두인 유목민의 삶이 아라비아반도에서 북아프리카까지 이어졌다는 역사적 사실도 발견했다. 나에게 이들의 삶은 사막이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인들이 상상하는 영감과 유희의 오리엔탈리즘에 쩐 공간이 아니라 '집'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사실 나는 조용한 것을 좋아해서 사막에 가면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다. 현재 리야드에서 이루어지는 사막과 관련된 예술 전시나 이벤트성 예술 프로젝트에는 관심이 없다.

모하마드 알파라지의 작업에 나오는 생태적 생각은 사막을 바탕으로 살아온 유목민들에게는 아주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사막과 관련된 잃어버린 도시나 아랍에미리트의 창립자가 사막을 일구어 심은 나무의 기적은 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사막이라는 공간을 아주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나에게 늘 관심 있는 것은..... 예술 작품을 통해 무거움과 가벼움 사이를 오가는 존재론적 질문과 작가의 시공간성이다. 내가 왜 아주 오랫동안 케케묵은 질문인 '사막'을 내 기억에서 잠갔다가



다시 풀었는지 모르겠다. 쉐리프가 2001년 '사막'에 간 이유는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 스트레스를 지우기 위함이라기보다 그의 혈통인 이집트를 되찾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한다.

수년 전 야곱의 길을 여행한 어떤 독일인이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의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당신이 방황한다면 이 질문을 해보세요.

당신이 현재 반려자 후보와 사막을 끝까지 같이 여행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제 난 이 질문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여기서 베두인 민족은 늘 살아남겠지..... 이 질문조차도 사막을 미화한 질문이다. 약간의 오리엔탈적인 면과 이국성이 담긴 이 질문은 이제 나에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질문으로 더 이상 작용되지 않는다..

아마도 난 오늘날 내가 스무살이 되기 바로 직전 쉐리프를 만난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는 나에게 이집트인으로 이주한 캐나다인으로서 존재 그 자체로 내가 생각하는 케케묵은 유럽 신화를 일찍이 깨게해줬다.

언젠가 사막에 가면 그의 가족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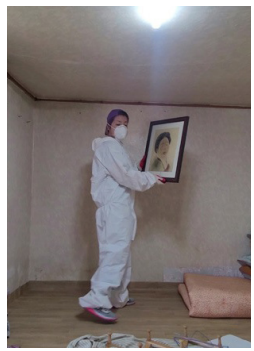
# 언젠가 사막에 가면
# 그의 가족의 안녕을 위해
# 기도하리라...



# 13

열세번째 원고

## 여백의 바닥



**한량윤씨**

게으른 창작자

본채의 바닥 미장은 올해 봄에 마무리되었지만, 그동안 짐이 그대로 쌓여 있던 공간에는 곧바로 마감을 할 수 없었다. 바닥 작업은 창고를 짓고 그 안으로 물건들을 옮겨놓은 뒤에야 비로소 순서가 돌아왔다.

한옥의 바닥 마감은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구상해 온 일이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선택한 방법은 에폭시였다. 에폭시는 주로 카페와 음식점, 작업실 같은 상업공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바닥 코팅재라 낯설지 않은 마감 방식이었다. 지난해 부엌 바닥을 먼저 에폭시로 작업했던 경험도 있었고, 당시 사용하고 남은 에폭시도 절반가량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양만 추가로 구입해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에폭시는 '멀티탄'이라는 제품을 선택했다. '상도, 하도를 한 번에'라는 문구가 마음을 끌었다. 기본적으로 나는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극도로 꺼리는 편이다. 그러니 단순하고 쉽게 작업할 수 있다는 이른바 '한방' 제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또 다른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한 색상이 있다는 점이었다. 다른 에폭시 바닥 방수제나 코팅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택 옥상 방수에 사용하는 녹색이나 회색 계열이 많고, 선택할 수 있는 색상도 그리 다양하지 않았다.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에폭시는 유광 투명 제품으로, 약간 노란빛이 도는 색이었다. 바닥에 바르고 나면 마치 참기름을 얇게 펴 발라 코팅한 것 같은 느낌이 난다.

하지만 투명한 에폭시는 바닥의 상태를 너무




바닥 코팅제 멀티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단점이 있었다. 울퉁불퉁한 바닥의 면을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색을 입히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한 색은 검정색. 은은한 광택이 도는 에그쉘광으로 선택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참기름색 에폭시와 새로 구입한 검정색을 섞어보면 어떨까? 두 색이 만나면 어떤 색과 질감이 만들어질지 궁금해졌다. 그렇게 조금은 엉뚱한 상상력을 보태 바닥 작업을 시작했다.

바닥을 코팅하기 전에 우선 해야 할 작업은 표면 샌딩과 먼지 청소였다. 지난번 바닥 통미장을 할 때 손으로 일일이 재료를 젓고 부어가며 작업했기 때문에 결과물은 울퉁불퉁했다. 아무리 매끈하게 마무리하려고 애써도 '수제'의 느낌을 피할 수는 없었다. 굳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수제'이지, 바닥은 어딘가 기울어진 듯했고 오묘하게 뒤틀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문제를 샌딩만으로 해결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였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집진기가 달린 샌더도 없었다. 넓은 면적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핸드 샌더를 들고 바닥을 밀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몇십만 원을 주고 중고 장비라도 사야 할지, 렌트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 전문가에게 샌딩만 맡기는 방법도 생각해 봤지만 어느 쪽이든 부담스러웠다.

지금까지 해온 엉성한 작업에 굳이 돈을 더 들여 샌딩만 말끔하게 하겠다는 것도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았다.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수제' 샌딩을 하기로 했다.

물론 욕심은 내려놓았다. 바닥 전체를 고르게 만드는 대신 정말 지저분하고 울퉁불퉁한 부분만 골라내는 선택적 샌딩이었다.

샌딩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지 않을지도 걱정됐다. 부직포 작업복을 입고 방진 마스크도 두 개나 겹쳐 썼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였다. 샌딩은 주로 남편이 맡아 진행했다. 먼지가 심해질 때면 군대에서 가스실 훈련을 받는 기분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와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다시 들어가기를 반복했다.

샌딩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무렵부터는 물걸레로 바닥 표면을 수십 번씩 닦아냈다. 바닥은 어느 정도 뽀얀(?) 표면을 드러냈고, 그제야 상상으로만 해왔던 에폭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마치 캔버스에 젯소칠을 마친 뒤, 처음으로 물감을 짜내는 순간과 같았다. 이 넓은 캔버스 위에 에폭시가 펼쳐지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고 설레는 마음에 조금은 흥분된 채 작업을 시작했다.

먼저 기존에 남아 있던 투명 에폭시부터 부었다. 다행히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였고, 꾸덕한 점성을 유지한 채 흘러나왔다. 이어 검정색 에폭시를 부었다. 18리터짜리 묵직한 통을 힘겹게 기울이자 꿀렁꿀렁한 검은 액체가 쏟아져 나왔다.

투명한 에폭시와 만난 검정 에폭시는 생각처럼 자연스럽게 섞이지 않았다. 나는 두 액체를 스퀴지로 긁어내듯 밀고 펴 바르며 마블링의 느낌을 만들어보려 했다. 서로 다른 두 액체가 만나고 갈라지며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꽤 재미있었다. 힘든 줄도 모르고 한참을 들여다보며 작업했다.

처음 바닥 색을 고민했을 때, 검정색을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어필해 본 적이 있었다. 부모님은 물론 남편도 너무 강한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그보다는 조금 더 무난한 베이지나 그레이 톤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물론 그렇게 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어쩐지 조금 다른 느낌을 원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바닥 전체를 완전한 검정색 한 톤으로 채우는 것도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투명 에폭시를 섞어 여백을 만드는 것이었다.

문득 수묵화가 떠올랐다. 검은 먹이 번지고 스며들면서 만들어내는 농담과 여백. 내가 처음부터 상상했던 바로 그 느낌이었다.

작업은 꼬박 3시간 정도 걸렸다. 그날은 전체 바닥의 60퍼센트 정도를 마무리했고, 저녁이 되어 나머지 공간은 다음 날 이어서 작업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 에폭시는 하루 만에 제법 잘 말랐다.

현관 앞까지 빠짐없이 꼼꼼하게 에폭시를 바르고 나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문득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졌다. 바로 사인이었다.

내 이름의 성이자, 이 집의 성이기도 한 글자를



에폭시로 코팅 작업할 한옥 바닥



수십 번의 바닥 청소



울퉁불퉁하지만 충분한 바닥

마지막 사인으로 남기고 싶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가족의 성씨였다.

내가 직접 한 작업이지만 그 시작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집에도, 이 공간에도 나보다 먼저 살아온 사람들의 시간이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내 이름 대신 우리 가족이 함께 이어온 성을 한자로 남기기로 했다.

검정색 에폭시로 바닥 한쪽에 먼저 한자를 쓰고, 그 위에 남아 있던 투명 에폭시를 덮었다. 그렇게 마지막 작업까지 마치고 바닥 코팅을 끝냈다.

작업을 하는 내내 입에서는 연신 '재미있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물론 그 즐거움에는 뒤늦게 찾아온 후유증이 있었다. 작업을 마치고 나니 허리 통증이 심해진 것이다. 허리는 물론 무릎까지 뻐근하고 시큰거렸다. 몸은 꽤 고생했지만, 어쨌든 결과물은 만족스러웠다. 드디어 오래된 집에 새로운 바닥이 생겼다. 그 위에는 부모님이 살아갈 시간과 우리가 함께 보낼 시간이 다시 쌓일 것이다. 언젠가 이 바닥도 낡고 흔적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두 가지의 에폭시를 섞어 작업하는 과정, 2일에 걸쳐 진행한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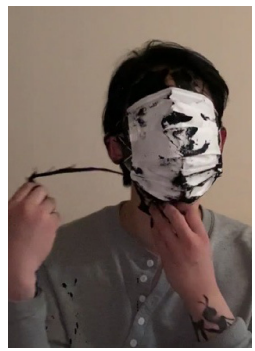
나와 우리 가족의 성씨로 바닥에 한 사인

언젠가 이 바닥도
낡고 흔적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 34

서른네번째 원고

# 불면 그 중



**김희진**
노동자

최근 안 좋은 꿈을 많이 꾸는데 그날도 잠을 겨우 자고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 거울을 보니 얼굴에 피가 철철 흐르더라. 실은 피가 가득 찬 모기 한 마리가 면상 위에 죽어 있었고 그 흔적일 뿐이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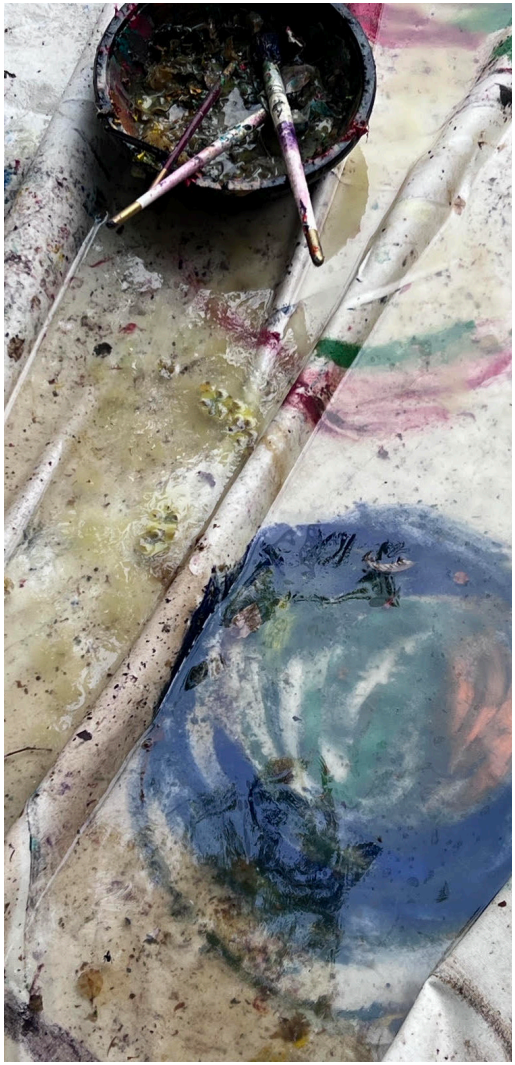
밤새 내 몸에 입을 대고 있던 것이 아침에는 내 얼굴에 붙어 죽었네, 아 배부른 죽음이구나, 나는 잠 한숨 이루지 못하고 너는 내 피를 먹다 배가 터졌으니 누가 더 살고 싶었던 것인지, 내 몸에서 나온 것이 네 목숨이었다가 도로 내 얼굴에 피가 되었으니 어느 쪽이 죽은 것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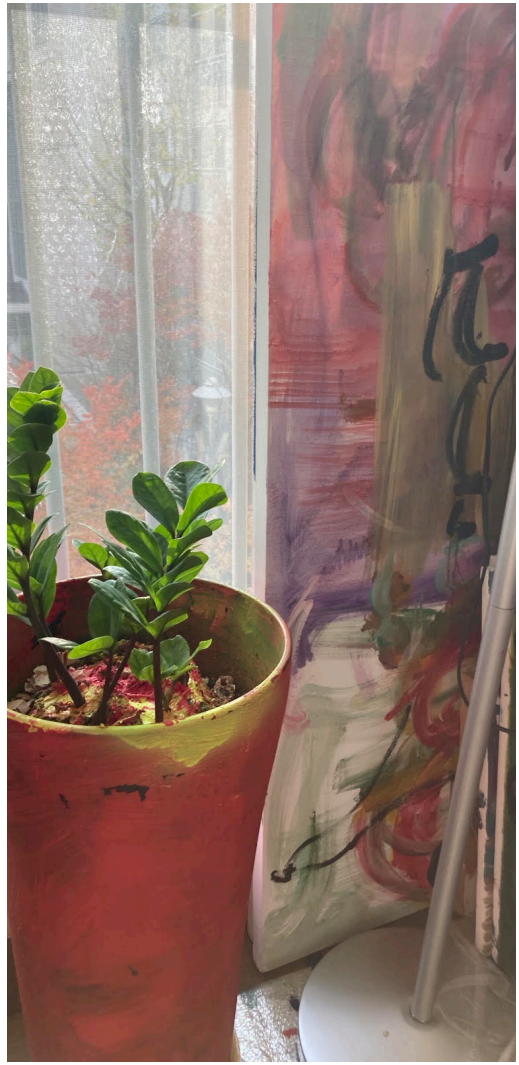
어제는 내 생일이었어. 정말 몇 분 전까지 내 생일이었는데, 그저 얼른 죽을걸 만 서른이 됐다. 너는 나를 한 번 먹고 죽었는데 나는 나를 서른 해나 먹고도 아직 배가 고프냐???

거울을 문지르니 죽은 것이 손끝에 묻어나// 살았을 적에는 그토록 가벼웠을 것이 죽어서야 내 손에 잡히는구나, 물을 틀어 보내려다가 잠시 들여다본다.

모기 한 마리 죽고 아이, 나는 또 살았네. 그러니 피를 닦고도 잠이 오지 않는다. 나는.







# 42

마흔두번째 원고 · 단편소설 (1)

# 개 짖는 밤

**오종원**
문화소비자 / 피그헤드랩 운영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깡깡 소리에 가까운 그 소리는 치와와나 말티즈, 혹은 비스무리한 작은 개의 그것처럼 들렸다.

모니터를 바라보던 A는 신경질적으로 창문을 닫아버렸다. 더운 저녁이었다. 선풍기에서는 미지근하고 끈적이는 바람만 불어온다. 자리에서 일어난 A의 모니터에는 채용 결과라는 화면이 보이고,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는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띄워져 있었다. 창문을 닫은 A는 잠깐 어두운 창밖을 보다가, 책상 옆에 붙여진 큰 전지에 다가갔다. 전지의 제일 상단에는 지원 기업이라는 4글자가 쓰여 있었고, 아래에는 다양한 이름들이 가로 세로로 정렬되어 있다. A는 그중에 하나를 찾아 유성 매직으로 X자를 쳤다. 벌써 그 X가 종이 위에 수두룩하였다.

다시 깡깡! 깡깡깡! 하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A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닫은 창문으로도 개 짖는 소리는 크게 들리고 있었다. 벌써 몇 시간째인지. 스마트폰을 들고서는 전화를 건 목록에서 번호를 하나 누른다. 네, OO동 지구대입니다. 라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까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개 짖는 소리가 멈추질 않아서요. 네 지금 출동을 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소리가 나는 위치가 파악되셨을까요? 그 말에 A는 닫힌 창문 너머, 큰 그림자를 향해 눈길을 보냈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이다. 그 그림자와 눈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집 안에서는 꼭대기까지 올려다볼 수 없었다. 아파트는 수많은 밝은 눈을 빛내며 A를 내려다보는 것만 같았다. 그 깡깡 하는 개 짖는 소리를 어딘가에 숨겨두고선.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면 조치 후 선생님께 연락이 갈 겁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A는 알겠습니다 라는 답변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문득 아파트에 불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A는 다시 자리에 앉아 마우스를 잡고, 이제는 습관과 같은 구직사이트를 접속하였다. 오늘까지 마감인 채용 공고는 이미 다 보았다. 이미 3군데나 이력서를 돌린 상태였고, 이번 달까지 취업이 안 되면 토익시험이라도 다시 준비해야 할까 생각을 하였다.

모니터에 커서를 빙빙 돌리다가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OO동 포레스트 아파트를 검색해본다. 이미 OO동까지 타이핑한 시점에서 과거 검색 내역에 아파트 이름이 존재하고 있다. 눈앞에 놓인 아파트의 정보. 매매가가 10억 원이 넘는다. 13억, 13억 5천만 원, 14억, 14억 2천만 원. 그 숫자를 보고 있으려니 A의 감각이 무뎌지고 아득해진다. 지금부터 취업을 하더라도, 또 연봉이 1억이 되더라도 무려 13년, 14년이나 일해야 마련할 수 있는 돈이다. 연봉이 5천이라도 된다면 26년, 28년이나 일해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나이는 어언 예순일 것이다. 그것도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을 경우겠지. A는 그런 계산을 하다가 곧 생각하기를 멈추었다.





깡깡! 깡깡깡깡! 개 짖는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리고 있다. A는 다시 한번 신경질이 왈칵 올라왔다가 창문을 닫은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곧 땀이 잔뜩 맺힌 뒤통수를 매만졌다. 더운 저녁이었다. 창문을 열어도 닫아도 개 짖는 소리는 다를 것은 없었다. 무엇인가 포기하고 다시 창문을 연다. 뜨겁진 않지만 미지근하지도 않은 공기가 훅 다가왔다.

원래 오늘자 채용 공고를 다 확인하고 나면, 책상 한켠에 놓인 한국사 문제집을 펼쳐 공부할 생각이었다. 한국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A는 일정을 확인할 셈으로 스마트폰을 열었다. 스마트폰에는 뉴스화면이 제일 먼저 올라오게끔 설정해놨는데, 함께 떠오른 수많은 광고들 사이로 몇 개의 뉴스가 눈에 띈다. “취업난, 해결이 안 돼...” “영끌족, 금리 인상에 대책 마련 촉구...” “수도권 외곽에 들개 무리 또 목격...” A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끄고 책상 위에 뒤집어 놨다. 이대로 잠에 들까 생각하였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다소 일렀다.

나가서 밤 산책이나 하고 들어오자. 생각해보니 집 밖을 안 나간 지 며칠은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간 것이 먹을 것을 구매하러 근처 마트를 들른 나흘 전이었다. 이 작은 방 한 칸에서 살아가는 것도 제법 많이 익숙해졌음을 느낀다.

A는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 위에, 바닥에 떨어져 구겨져 있는 츄리닝 바지를 꺼내 입었다. 검은색 무릎 위에 먼지가 앉아 있는 것 같아 툭툭 털었다. 옷장에 있는 티셔츠, 그중에서 제일 어두운 색의 티셔츠를 꺼내 맨살 위에 얹는다. 왼쪽 가슴, 나이키 로고에 K자가 없어진 것은 나가기 직전, 현관과 연결된 화장실에서 보게 되었다. 오늘 나갔다 들어오면 이 티셔츠는 잠옷으로 입어야겠다.

현관을 나서면 바로 계단이다. A가 사는 원룸은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의 제일 옥상이었다. A는 이것이 차라리 조용하고 취업에 집중이 잘 될 것 같다고 위안하였다. 그러나 한 번도 5층에 살아본 적 없던 그에게 한 층당 2세트씩, 총 8세트의 계단을 오르고 내려야 한다는 것은 어느덧 바깥세상과 오고 가는 데 큰 어려움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 이 아파트 단지, 수천 세대는 된다고 들은 이 거대한 벽 덕분에 창문에 제대로 된 햇살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한 아늑함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는지, 덕분에 해가 뜨든 지든 자신의 집 안에만 앉아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큰마음을 먹고 집을 나서는 셈이었다.

연립의 주인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고령의 노인이라 한다.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이 연립을 구매하였는데, 황당하게도 이 연립이 위치한 작은 블록만 빼고는 골목길 건너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고 한다. 집주인은 체념한 탓인지 건물 관리도 안 하는 것 같아서, 1층 현관의 손잡이가

떨어져 없어졌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깡깡! 깡깡! 깡깡깡깡! 건물을 나서니 개 짖는 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수많은 아파트 동 사이에서 메아리치고 이곳저곳에 부딪치며 더욱 소리가 거세지고 있었다. 저 개 짖는 소리에 대체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인가. 누구라도 저 집의 문을, 그래 비상 상황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서 개를 짖지 않게끔 할 수 없는 것인가. 혹시라도 모른다. 저 개와 함께 살던 누군가가 갑작스런 사고를 맞아, 예컨대 심장마비나 뇌출혈 같은 증세가 찾아와서 쓰러져 버린 것일 수도 있다. 그가 키우던 개는, 가령 그 말티즈는 주인을 깨우고자 하는 일념으로 저리 거세게 짖는 것일 수도 있다. 저리 각혈이라도 할 듯이 짖는 이유가 무엇인지 A는 다시 상상력을 자극해본다.

그렇다면 미리 지구대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린 자신이 영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중에 뉴스에 실리는 것이지. 고독사를 막은 이 시대의 영웅이라면서, 내가 개 짖는 소리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지구대에서 내 번호에 연락을 하여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는데 선생님 덕이라며 치켜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인터뷰라도 한다면, 그러면 내 이름 옆에 무직이라고 나올 텐데 괜찮을까? 그 생각을 하고 웃겨서 키득거렸다.

A는 주머니 속 담뱃갑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들었다. 담뱃갑 속에 들어있는 마지막 담배였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는 주민만 들어갈 수 있도록 철통 경비가 되어있다. 카드로 찍어서 출입을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금연이라, 단지를 나와야만 흡연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저 큰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한참을 나와야 한다. 담배를 피고, 돌아서서 카드를 찍어 아파트로 들어가고, 다시 한참을 걸려 집까지 가야 하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며 담배에 불을 붙이니 작은 우월감이 들었다.

그러다 연립으로 들어가는 누군가를 발견 후 민망함에 골목의 코너로 향했다. 집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매너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A는 그 담배 한 개비를 조심스럽게 물고 연기를 들이켰다. 마지막 담배라고 생각하니 더욱 깊이 입안으로 머금는다. 그리고 콧구멍으로 이를 뿜어내며, 새 담배를 사러 편의점으로 향하였다.

편의점은 골목에 코너를 돌면 바로이다. 이곳은 딱 A의 연립을 포함해, 이 블록의 주민들만 다니는 편의점이었다.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오려면 아파트 단지를 빙 도는 마을버스를 타야 했는데 그때 세어본 편의점만 하여도 각 정류장, 각 아파트의 출입구마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았다. 그나마 아파트 주민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는 A가 사는 집에도 편의점이 멀지 않다는 것이었다. 편의점만큼은 평등하다고 A는 생각하였다.

아직 꺼지지 않은 담배를 마지막으로 깊게 들이켜고서는 뿜어내었다. 툭툭, 손가락으로 꽁초를 털어내고는 휙 던진다. 편의점으로 들어서자 환한 빛이 A를 감쌌다. 카운터에서 담배를 주문한다. 그러나 자신이 담뱃갑 외에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음을 깨닫고서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편의점을 나와야 했다.

그때 저 구석에서 검은 무엇인가가 움찔거렸다.

개였다. 작지도 크지도 않은 그 개는 A를 바라보고 있었다. 짖지도 않고 꼬리를 젓지도 않고 경계하지도, 그러나 A를 반기는 기색도 아니다. 개의 눈동자는 A를 향하고 있었다.

A는 그 개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쫓아내기도, 발을 구르거나 소리를 칠 생각도 없었다. 그렇다고 개를 반기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다. 개를 키워본 적은 없어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그리 늙은 개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개의 눈에는 눈물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리고 눈가에 얼룩인지 무엇인지, 작은 덩어리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개는 말라 있었고 목줄은 없었다.

개와 A의 거리는 몇 걸음 채 되지 않았고, 편의점의 불빛이 개와 A에게 환하게 내려 비추고 있었다. 개는 차분하고 조용했으며 그저 A를 바라볼 뿐이었다.

깡깡! 깡깡깡! 다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마주한 개는 아파트 단지로 고개를 휙 돌렸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수많은 밝은 창으로 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비로소 아파트의 꼭대기가 보인다. 마천루라고 부르던가. 마치 TV에서 보던 거대한 산맥마냥 아파트들의 옥상은 밤하늘의 중심부에서 활짝 펼쳐져 있었다. 별 대신 반짝이는 아파트 옥상의 조명들.

A가 다시 개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니, 개는 뒤를 돌아 터덜터덜 걸어갔다. 아파트의 반대 방향으로, A가 살고 있는 연립의 블록으로 뒤돌아 걸어가고 있었다. 꼬리는 들려 있지 않았고 골목의 어두움 속에서 개의 등가죽에도 어둠이 깔려 있었다. 깡깡! 깡깡깡! 개는 다시 한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듯하였으나, 이내 골목의 안쪽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표지 이야기

# 쏘가리 매운탕

민물고기 매운탕은 확실히 취향을 타는 음식이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다. 워낙 유명한 것처럼 흙냄새라고 할까, 민물고기 특유의 탁하고 거부감이 있는 냄새는 매운탕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데 충분했다. 그래서 이것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맵고 칼칼한 국물에 밥을 비벼 반찬을 얹어 먹는 정도로 즐겼다. 그래, 즐겼다고 생각했다.

어떤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자 방문한 단양. 이곳이 충주호와 민물고기 낚시 등이 유명하다는 얘기는 들었다. 심지어 단양군의 상징도 쏘가리일 정도이니 얼마나 민물고기가 유명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도 낚시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우연히 한 식당을 지나치는데 블루리본 서베이 스티커가 가득하다. 그러나 식당은 쏘가리 매운탕집. 메뉴를 얼핏 보니 쏘가리가 제일 대표 메뉴이고 민물고기 매운탕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다. 앞서 말한 대로 민물고기 매운탕은 영 내키지 않은 음식인데, 어째 이 날 따라 쏘가리라는 것이 궁금해졌다. 맛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한번도 먹지 못했던 그 쏘가리. 마침 단양의 날씨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많이 돌아다니기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섰다.

그리고 시킨 쏘가리 매운탕.

식탁 위에서 버너 위에 끓고 있는 매운탕을 보며, 이거 정말 괜찮은 것일까? 하고 물었다. 이미 주문하고서 걱정하다니. 국물부터 한 입 먹어보았다. 어어? 흙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 칼칼하면서도 살짝 기름진 국물 맛이 혀를 감돈다. 이거 생각보다 좋다.

용기를 내서 쏘가리 한 점을 떠서 입에 넣는다. 살이 참 찰지다. 적당히 쫀득 하면서도 식감이 좋았고 담백한 게 자꾸 땡긴다. 생긴 것은 우락부락하고 피부는 표범 무늬 같은 게 이렇게 좋은 맛을 숨기고 있을 줄이야. 비린내도 없이 깔끔한 것이 이 녀석 매너도 좋다.

뒤늦게 수제비를 추가로 주문해서 떠먹을 정도로 맛있게 먹은 쏘가리 매운탕. 날이 추워지면서 소주 한잔에 또 생각이 나는 것이다.



PIGHEAD LAB

월간 피그헤드랩 Monthly Pigheadlab
2026.11 / 통권 47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https://www.pigheadlab.com/)
ISSN : 3059-0280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 인스타그램 pigheadlab
이번달 참여 필진 : 김희진, 오종원, 이동민, 이채연, 한량윤씨, X

월간 피그헤드랩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내 콘텐츠 사용 등의 문의는 피그헤드랩에 우선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단체 및 장소 대상 무료 배포